

# ‘이름만 남아있는 비운의 작가’ 작품 빛볼까

근대미술사 굽직한 족적 박광진작 공개

수하갤러리 소장기획전 내달 3일까지

1940년 제작 8호 크기…의재와 나란히

문화비수기일 것 같은 2월 중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전시 중 하나는 동명동 소재 한 갤러리의 전시가 아닐까 싶다. 광주시립미술관이나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선우나 한희원 전시 등이 가장 비중 있는 있는 전시는 맞다.

하지만 근현대미술사로 폭을 넓혀 새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거나 국내에 아주 희소한 가치를 띠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라면 당장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대미술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중요한 접점에 자리한 미술계 인물의 작품이라면 이탈 지역 미술하기의 풍향계는 바뀔 수 밖에 없다. 국내에는 작품을 거의 찾을 수도, 관람할 수도 없는 작품이 한 갤러리에서 소장작으로 전시 중에 있다.

지난 6일 개막해 오는 3월 31일까지 ‘남도 화백의 맥-시대를 잇다’라는 타이틀로 열릴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수하갤러리(대표 장하경)의 소장 작품 기획전이 그것이다. 이 기획전에는 낯선 이름의 작가 작품이 출품됐다. 수하갤러리의 소장작품의 하나로 출품된 황해도 개성 출신 박광진의 미상 작품이 지역미술계에서 단연 돋보인다.

이 작품은 국내 최초 서양화 미술그룹인 녹향회를 결성, 산파여행을 한 박광진이 오지호 등 서양화가들과 전국을 돌며 스케치 여행을 하다가 목포 유달산과 인근 천주교를 대상으로 했고 알려지고 있다. 오지호 화백은 이 그룹 2회 때부터 동참해 박광진과 연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이 작품은 대략 8호 정도



의재 허백련 작품과 박광진 작품(오른쪽).

크기로 몇몇의 화가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들 화가는 물감을 좋은 것으로 썼는지, 편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나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장 대표는 술회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한 육선에 배동신 화백의 작품을 묻다가 박광진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것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보존해야 할 것인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도 덧붙여 들려졌다.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은 그의 작품 사정상 이번 출품작은 대개 회귀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작년도는 1940년으로 추정된다. 작품에 기입돼 있어서다. 원래 박광진이 목포에 와서 작업한 작품은 자신의 동생에 넘겨준 것으로, 그의 동생은 결혼해 신혼살이를 목포에서 하고 있었다. 그래서 1940년 신혼 때부터 동생이 각자 해온 작품이다. 장 대표는 입수 계기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오지호 외에도 의재 허백련도 폭넓은 인연을 쌓았다. 작품이 의재와 나란히 걸려 있다. 의재와 박광진의 인연은 1937년 경복궁 옆에 세운 조선미술원 때문이었다.

조선미술원은 박광진이 주도해 세운 국내 최초 미술교육기관으로, 박광진이 서양화부 동양화부 조각부 등을 개설해 운영한 가운데서 서양화는 자신이 맡고 동양화 채색화는 이당 김은호, 남종희는 의재, 조각은 김복진을 각각 초대해 아이들지도를 맡겼다.

건물 규모는 서울 종학동(中學洞)에 위치한 총면적 80평의 3층 규모의 서양식 석조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 및 사교실(내방객 및 예술가들의 교류 공간), 2층에는 동양화실 및 서양화실(실키 연구 공간), 3층에는 조각실 및 숙직실, 지하실에는 조각 제작 및 주물(casting)을 위한 특수 작업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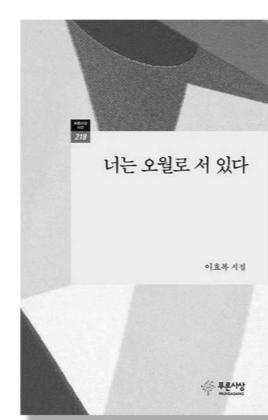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이땅의 치유 기원” 상처가 된 삶 해원 갈구

나란히 남편(박현우 시인)과 시를 쓰면서 부부시인으로 알려진 전남 장성 출생 이효복씨가 세번째 시집 ‘너는 오월로 서 있다’를 푸른사랑 시선 218번지 권으로 평택했다. 같은 출판사에서 204번지 권으로 시집을 출간한 바 있다. 시인은 늘 뜻풀한 남도의 삶에 천착하며 시적 영토를 개인의 영역에 가둬두기보다는 역사와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시적 촉수를 빼치고 했다. 시인이 오지랖이 넓다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삶과 사적 삶이 따로 분리돼 간다는 생각보다는 두 극端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의 작은아버지는 5·18 당시 신군부의 진압명령을 거부했던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었다. 이 서장은 신군부에 따르기보다는 시민들의 생명을 먼저 챙겼기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 90일간 구금당해 고문을 당했고, 폴려나자마자 파면당했다. 고문후 유증으로 5년 뒤 별세. 현종원에 잠들어 있다. 2018년에야 명예회복이 됐다. 작은아버지 일이 있으면서 공직에 부진마저 완도 등 삼지역을 전진해야 했다. 시인은 시인대로 5·18의 기억은 선명하



다. 5·18 일어나던 해 막 교사로 부임해 보문고에 재학하면서 때였다. 학교가 휴교조치가 내려졌고, 착검한 계릴리군에 교사라는 신분을 입증해야 했다. 그 와중에 버스로 이동하던 중 계릴리군으로부터 자신만 하자해 군인들을 불들려가 난처한 상황을 겪었고, 훗날 상처가 됐다. 그는 5·18의 배후나 주동자여서 아팠다기보다 임혹한 군사경권 시절 부조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시민이었다. 이런 정체성이 3부에 5월시를, 4부에 작은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 배치한 이유다. 또 시집 출간 준비 중에 비보들을 빼드리지 않았다. 고교생 5·18 시민군 김향득(시진작가) 씨나 예제하기자(광주인) 등을 잊지 않고 시집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도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시집 표제 역시 김향득 열사와 연관있다. 김 열사가 생전 이 시인에게 도청 앞 은행나무에 5·18 때 엄청나게 많은 총격을 받아 탄환 자국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설명해주곤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화한 것이 ‘오월 은행나무로 서 있다’. 김향득으로, 시구절에서 사용해 표제로 삼았다. 시집 표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핵심 서사는 오월에 맞춰진 셈이다. 서두를 통해 “이땅의 치유를 기원한다. 흔을 다해 생을 마감한 의로운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새겨본다”고 했듯 이 시집이 지향하는 지점을 몇몇의 시면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오월 은행나무로 서 있다. 김향득’이라는 시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본관 앞 총상 맞은 은행나무./ 그 탄흔의 상처를 마음 애타 어루만지며 내게 말했다……증락……/그곳에 가면 너를 만났다/옛 전남도청 앞 은행나무 탄흔 흙거진 상처/어루만지며 너는 오월로 서 있다/오월의 은행나무로서 있다’고 노래했다.

또 시 ‘오월광장을 누비다. 예제하’라는 시를 통해 ‘학동 참사 1주년 현장에서 만나/읊은 시 전문을 언론에 개재해주었고/시집에서 소재원이라던 시가 유독 다가왔다며……증락……/학동 참사 현장에서 5월 민주광장에서 음악 방송에서/그 모든 기억을 앓고 먼저 가는 구나’라고 읊고 있다.

김향득과 예제하가 숨지는 일에서 5·18과 학동 참사 등 힘없는 약자들의 속고한 삶을 상기하고 있다.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숨졌다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함께 하는 이들의 선의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시적 섬김을 발현하고 있다.

한편 출판기념 북토크 및 시낭독회는 지난 1월 27일 장성에서 한차례 연례 이어 12일 오후 6시 풍암동 영빈관에서 열린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유역 고분의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외래 묘제 요소를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변형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보고서는 죽암리 전방후원형 고분이 마한 계 지역 수장세력의 정치적·문화적 주체성이 반영된 독자적 묘제임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국가사적 지정 검토와 마한 고분 문화 연구 기초 자료로 보고서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문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 고분 구조 ‘규명’

전남문화재단, ‘함평 죽암리고분’ 발굴 보고서 발간

전남문화재단은 전남도, 함평군과 전남도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함평 죽암리 전방후원형 고분 발굴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2년 시굴조사와 2023년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죽암리 전방후원형 고분의 구조와 축조 과정, 매장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고 영산강유

역 전방후원형 고분 문화의 특징을 담았다.

죽암리 고분은 원형부와 방형부가 결합된 전방후원형 분구를 갖췄다. 5~6세기 영산강유역에서 유행한 흥렬식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고분으로 확인됐다. 원형부 내부에 방사형 점토 구획이 조성돼 계획적 성토 공정이 이뤄져있음을 보여준다. 방형부에서는 회백색 점토 피복층이 확인된

## 국악으로 ‘문화 일상’ 열기

국악문화학교, 23일부터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해 ‘2026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한다.

‘2026 국악문화학교’는 국악의 일상적 행위를 촉진하고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이 직접 강사진으로 참여해 국악 실기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사물놀이,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등 총 7개 과목이다.

수업은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총 25회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과목별 모집 인원은 15명(아쟁 10명)으로 선착순이다. 기족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청소년 5만원, 일반인 10만원.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jindo.gugak.g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1-540-4037.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